

집에서 받는 진료 서비스 시대 연다 청소년 체육시설 주말 무료 개방

장수군, 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본격 운영

장수군은 지난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정책에 발맞춰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중 거동이 불편해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살고 있는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김문철내과의원과 협약을 맺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공모·선정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입원과 시술 입소를 줄이는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계면 소재 김문철내과의원과 군 보건의료원이 협업해 사업을 운영하며 재택의료센터 이용대상자에게 의사는 월 1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월 2회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수군은 지역 의료기관과 손잡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상담은 물론 다양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이용 시에는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재택의료와 지역 돌봄 연계를 더욱 강화해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예체문화관 다목적홀 · 등나무운동장 · 다목적구장 등 3곳

무주군이 지역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 무료 개방에 나섰다. 군은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 체육시설 3곳을 주말과 공휴일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 시설은 실내 체육활동이 가능한 무주읍 예체문화관 다목적홀과 야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등나무운동장, 다목적구장 등이다.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는 배드민턴과 농구, 배구 등을 즐길 수 있으며, 등나무운동장에서는 축구와 족구, 풋살 등 다양한 종목 이용이 가능하다.

군은 이용자 편의와 안전 확보를 위해 예체문화관 다목적홀 바닥에 설치된 미투 보호용 카펫을 철거하고, 기타 시설 점검도 완료했다.

이용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별도의 이용료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초등학교 73명이 참여하는 '차범근 축구교실'을 비롯해 동계스포츠 꿈나무 육성,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계스포츠 유망주 발굴을 위해 무주군청 바이애슬론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애슬론과 스키, 스노보드 등 종목에서 14개 학교 76명의 꿈나무를 육성 중이다.

또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청소년에게 태권도장, 헬스장, 수영장 등 지정 시설 이용 시 월 10만 5천 원씩 12개월간 강좌비를 지원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농촌 일손 해결 위한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

진안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농업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광응이성 계절근로자 65명이 지난 10일 입국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근로자는 첫 입국으로 현재 진안군에는 이미 1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가 입국을 계기로 본격적인 영농철 인력 수급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인권 보호와 법률서 준수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관내 배정 농가로 이동해 영농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나머지 베트남 근로자들도 조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제7차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열려

진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7차 진안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요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2026년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변경(안) △2027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안) 등 총 2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6년 고향사랑기금 세출예산 변경(안)은 기금사업의 추진 현황과 집행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금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사항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사업의 목적 부합 여부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 변경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했다. '2027년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안)'에서는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안 사업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사업의 공공성, 실효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2027년도 추진 사업을 선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황인홍 후보, 무주에 필요한 리더십"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 지지 공식 선언

무주군공무직노동조합이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무주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황인홍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 10일, 황인홍 무주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선언문

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온 황인홍 후보를 지지함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황 후보에 대해 "노동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가치로 인식하고 노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황인홍 후보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노동 존중을 보여준 후보"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적으로 연결해온 경험은 앞으로의 무주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이 존중받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무주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황인홍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공약 이행평가 '최고(SA)등급'

진안군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SA등급)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본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2025년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이행과 성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진안군은 체계적인 공약 관리로 60개의 사업 중 48개 완료, 12개 정상 추진 등 90%의 높은 이행률을 달성하고, 군민배심원단의 주민참여형 평가와 누리집을 통한 공약 이행 현황 공개 등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약사업의 단계별 점검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벼 병해충 드론 공동방제 추진

무주군이 농업인 교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무인 항공(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1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25ha 규모 농지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제는 7월 15일부터 8월 2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일반 재배지 415ha와 친환경 재배지 10ha를 포함한다.

신청은 오는 4월 2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하며, 지역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경영체 미등록 필지와 벼의 작물 재배 농가, 무인 방제로 인한 인근 농지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특히 방제 지역 인근 10m 이내 인삼밭이나 과수원, 100m 이내 양봉 농가가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벼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깨서무늬병, 이삭누락병, 이화병나방, 흑령나방, 벼멸구 등 주요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발달장애인 대상 말산업 분야 기초 직업훈련 운영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영)과 한국마사회 장수목장(목장장 김진갑)은 지난 3월 11일부터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산업 분야 기초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말산업 분야 기초 직업훈련은 장수목장이 운영하는 말 요양소 마방 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토대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며, 총 15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과정에는 발달장애인 5명이 참여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를 진행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또는 말 관련 사업체 취업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훈련 내용은 초급 1과정(마방 건조 채우기), 초급 2과정(마사수장대 청소), 말 먹이주기 체험 등을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은 말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직업훈련에 대한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